KOREA FASHION ASSOCIATION
한국패션협회

K-FASHION, K-FUTURE

www.koreafashion.org

(061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16층
[문의] 사업3부 정다운 과장 02-528-0116 dwjung@koreafashion.org

한국패션협회, 「2026 의류제조 혁신포럼」 성료

- 제조 민첩성 확보와 글로벌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한 K-패션 성장모델 모색 -

□ 한국패션협회(회장 성래은, 이하 '협회')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의 지원으로 지난 11월 9일 영원무역 명동빌딩에서 「2026 의류제조 혁신포럼」을 개최하고, 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의류제조 산업의 역할 재정립과 브랜드·제조·기술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산업 성장모델을 조명했다.

□ 'WHO MAKES K-FASHION? K-패션산업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승겸 카이스트 AI미래학과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기후변화, AI 확산,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제조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래 제조 경쟁력의 핵심으로 '제조 민첩성(Manufacturing Agility)'과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제시했다. 변화하는 시장 수요와 외부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체계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제조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 김 교수는 "미래 제조의 핵심은 예측을 한 번도 틀리지 않는 공장이 아니라, 예측이 빗나가도 대응할 수 있는 공장"이라며, 수요 변화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불필요한 생산을 줄여 필요한 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민첩하고 연결된 제조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6 의류제조혁신포럼 (좌)김승겸 카이스트 교수 (우) 이정민 트렌드랩506 대표 (사진:한국패션협회)]

□ 이어 특별강연에서 이정민 트렌드랩506 대표는 국내 의류제조업의 영세화와 생산 기반 약화가 K-패션 브랜드의 창업 및 성장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영국·미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의 산업 전환 사례를 통해 국가별 핵심 제조 역량과 브랜드 성장 구조를 연계한 전략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특히 스페인 인디텍스(Inditex)의 로컬 생산과 글로벌 소싱을 병행하는 생산 전략을 참고해 국내 제조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브랜드·제조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패널토론에는 ▲김정현 리빌더에이아이 대표, ▲윤순민 비에파 대표, ▲이정민 트렌드랩506 대표가 참여해 국내 의류제조업의 구조적 한계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논의했다. 브랜드와 제조기업 간 협력체계, AI·디지털 기술 기반의 생산 혁신, 유연한 생산체계 구축 및 제조 전문인력 육성 등 K-패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조 경쟁력 강화 방향을 모색했다.

○ 윤순민 대표는 패션 제조업이 사람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생산구조로 인해 숙련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뷰티산업이 자본과 설비 중심인 것과 달리 패션은 여전히 사람의 손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적 특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피지컬 AI가 제조 현장에 가져올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동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기반으로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패션 제조업도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현 대표는 2D 이미지를 3D로 구현하고 제조 데이터로 전환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의 수정·편집 과정을 AI 에이전트가 학습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와의 협업을 통해 신발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기능성 검토, 어퍼 패턴 개발 등 실제 제조 설계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이정민 대표는 K-패션의 글로벌 성장 제약 요인으로 해외 유통망과 전문 세일즈 인프라 부족을 언급했다. K-뷰티의 실리콘투 사례를 들어 브랜드와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글로벌 유통 파이프라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패션은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 뷰티와 차별화된 해외 유통 전략이 필요하며, 국내 패션 플랫폼과 대기업이 중소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이끌고 글로벌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번 포럼에서는 K-패션의 다음 성장 모델로 제조 민첩성, AI 기술 기반 생산 혁신, 브랜드·제조기업 간 협력, 글로벌 유통·세일즈 인프라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내 의류제조 기업의 전문화와 생산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글로벌 산업 네트워크를 확장해 K-패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26 의류제조혁신포럼 패널토론 및 행사전경 (사진:한국패션협회)]

※ 문의 : 한국패션협회 정다운 과장(dwjung@koreafashion.org)